

정례브리핑

2020.10.12(월)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특별한 일정 없이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내일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 없이 부내에서 업무를 보고,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공무원 사건이 있기 이전에 지난달에 추석 전에 이산가족 화상 상봉이나 영상편지 교환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무산이 됐는데 이것 재추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화상이든 대면 상봉이든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인도적 사안입니다. 비록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 상봉은 무산되었지만 정부는 북측이 호응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추진할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또는 화상 상봉에 있어서 하루빨리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남한에 대해 남한에 '남녘 동포들 사랑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이크, 온 마이크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을 통해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는 표현과 또 '코로나 상황이 되면 손잡을 날이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환경이 조성될 경우 남북관계가 복원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제 입장 발표, 입장문을 통해서 환영하는 입장, 기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남쪽에서의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이 돼서 남과 북이 서로 손잡고 협력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입장발표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것을 제안한다든지 저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인도적 협력과 보건 분야의 협력에 있어서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고 또 이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단,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무슨 제안을 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향후 환경 조성 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열병식에서 이것 말고도 ICBM이나 SLBM 전략무기를 북한에서 공개해서 어떤 세계적 이목이 끌렸는데 이것 관련해서 통일부의 입장이 있는 것 있으면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군당국이 우려를 표시했고, 통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환경이 조성돼서 남북 대화가 복원되고 하루빨리 남북 간 협력이 확대돼서 한반도의 평화 증진에 남과 북이 모두 함께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